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당회:** 10월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 **감사주일:**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 ◎ **준비:** 공동체, 선교회별로 성탄 준비하셔서 은혜롭고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 **예고:**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각 임원은 한 주간 연락하셔서 12월 총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훈련:** 교사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 11월 9일(토)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주님의 교회 강사: 박원호 목사(서울 주님의 교회 담임)
- ◎ **감사:** 자선음악회에 협조하신 성도, 꽃꽂이로 수고하신 성도, 마오리 교회 연합예배와 밀알 장애우를 섬겨주신 성도,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한 통가 공동체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소식

성경완독: 박수현 집사 -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31)

11월 새벽 기도회 본문

1일: 고전 6:1~11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8일: 고전 9:1~12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15일: 고전 11:17~26 본질과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22일: 고전 14:13~25 깨닫고 전하는 말이 더 유익합니다
29일: 고전 16:1~12 나눔과 동역으로 세워지는 교회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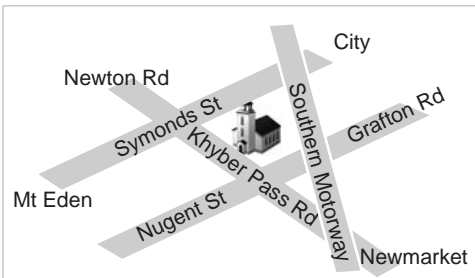
밀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3년 10월 27일

15권 43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모순과 역설

한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 개미는 잔뜩 모아 놓은 양식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지만 베짚이는 여름이 다 지나도록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그냥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에 먹을 양식이 없어 개미에게 얻어먹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게으른 베짚이 보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현대판 개미와 베짚이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너무 열심히 일한 탓에 개미는 신경통, 류머티스 관절염, 허리 디스크에다가 스트레스까지 쌓여 겨울이 되기 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 여름 내내 기타치고 노래하던 베짚이는 가을에 음반을 내었는데 그것이 히트를 쳐서 떼 돈을 벌며 평평거리며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모순과 역설의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비록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신앙이 바로 모순과 역설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5:39에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 뺨은 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왼편 뺨을 그것도 치기 좋게 돌려대라는 말은 정말 모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서 이런 모순을 적용하여 “속웃을 가지고자 하면 겉웃까지 가지게” 하며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신앙은 역설입니다. 고린도후서 12:10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약하면 약한 거지 약할 때가 강하다는 것은 역설 아닙니까? 누가복음 18:14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경쟁시대, 자기 PR 시대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순과 역설 안에 신앙 생활의 기쁨과 비밀이 있습니다.

보리 떡 두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로 오천 명이 먹고도 남은 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과 역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모순과 역설은 떡과 물고기를 연약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살이에서 모순과 역설을 보거나 경험하더라도 실족하거나 낙망하지 말것을 당부하십니다. 모순과 역설을 우리 신앙에 잘 적용하면 감사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 이태한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추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Ph: 09 - 369-5077

Ph: 09-475-6312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00:2~4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64장	다함께
※ 성시교독	106. 감사절 2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간증		말은이
찬송	589장	다함께
대표기도		고성일장로
성경봉독	에베소서 5:20~21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다시하는 감사	이태한목사
찬송	301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감사찬양		남수민청년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11월 교회알지

월삭 기도회:
11월 1일(금)
향존직분자 기도회:
11월 8일(금)
성서주일:
11월 10일(주일)

◎ 11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최득수/오지영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정옥자 권사
다음 주일 1부: 김순자 권사
다음 주일 청년부: 권준현 형제
11월 6일 수요: 원미경 집사
11월 6일 애찬: 한상순 집사
11월 10일 1부: 박덕철 장로
11월 10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청년 모임 (15:00)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정지윤 자매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경덕현 집사
성경 / 룻 3:10~13
설교 / 보아스의 배려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540장
주기도 / 다함께

금주의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도록,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삶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전 건물 구매를 위해 쉬지 않는 기도와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도록, 남은 한해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마무리 짓는 성도들이 되도록, 학업 중인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더하도록.

2. 뉴질랜드와 솔로몬 제도를 위해

인본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는 뉴질랜드들이 되도록.

전쟁 후 경제와 사회기반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평화 회복이 지속될지 불투명한데, 인종 간의 복수나 쓴 뿌리가 제거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갈보리 공동체는 각 나라를 이름으로 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공동체의 나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살피고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일에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 제도에 대하여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오세아니아의 영연방국가로 남태평양의 섬나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작은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 48만 명가량의 작은 나라로 수도는 과달카날주의 호니아라입니다. 한국과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작년 10월 9일 한국의 한글날에 이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주(州)와 말라이타주가 한글을 모어(母語) 표기문자로 도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는 공용어인 영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전체의 1~2%에 불과하고 70여 부족 간의 사소통에 주로 사용되는 솔로몬 피진어(영어와 토착어가 결합한 언어)의 사용자도 많지 않아 모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족은 벨라네시 종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90% 이상이 자급형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발이 가능한 풍부한 천연자원이 곳곳에 매장되어 있어 열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과 산림업이 주요 수출원에 걸맞게 사방의 바다와 울창한 산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여 정부는 관광사업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족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 의료, 교육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 그 회복이 더딜뿐아니라 경제성장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중반기 이후로 수출은 예년보다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되리라는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 아름다운 산호초를 비롯하여 열대어를 볼 수 있는 이 나라는 사방이 스쿠버다이빙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골프, 테니스, 수영, 수상스키 등을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대체로 럭비와 축구, 크리켓을 좋아합니다. 예술품은 흑단과 등나무 조각품이며 다양한 형태의 대나무 파이프를 이용하여 연주용으로 사용합니다. 기독교가 우세하지만 아직까지 전통문화가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숭배 사상이 남아 있는데 주민들은 사후에 새, 과충류 또는 상어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내전의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집 주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편물은 우체국에 위치한 유료 사서함을 사용하며,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 그 흔한 전화나 인터넷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